

해외 지재권 출원, 서울에서 WIPO 직원과 상담하세요

- 세계지식재산기구 직원 안제이 갓코프스키, 회원국 특허청에 첫 파견 -
- 세계지식재산기구 서비스 상담, 홍보, 의견수렴 업무 진행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소속의 안제이 갓코프스키(Andrzej Gadkowski) 변호사가 한국 특허청에 첫 파견돼 10. 14.(월)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우리 기업들이 서울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직원에게 특허, 상표 등 해외 지식재산 출원 및 국제 지식재산(IP)분쟁 조정 등을 상담할 수 있게 돼 WIPO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직원(안제이 갓코프스키)이 특허청에 파견('24.10.14)돼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직원의 특허청 파견은 지난해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한-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이뤄졌고 세계지식재산기구가 회원국에 인력을 파견한 첫 사례다. 또한, 한국 정부부처에 유엔(UN)산하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 역시 국내 첫 사례이다.

이번에 파견된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PCT 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분쟁조정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상담, 홍보와 한국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한국 특허청에서도 직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스위스 제네바)에 파견('24. 5월)돼 글로벌챌린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의 한국 파견으로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우리 출원인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WIPO 파견 직원 인적사항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책임자	과 장	박현수 (042-481-8197)
		담당자	사무관	이윤혁 (042-481-8555)

인적 사항	사진
• 성명: Andrzej Gadkowski (안제이 갓코프스키, 만 40세) • 소속: WIPO 중재조정센터, IP Disputes Section, Legal Officer(P3) • 국적: 폴란드, 스위스 (영어, 불어 가능) • 학력: 법학박사 (폴란드 Adam Mickiewicz 대학, Geneva 대학) • 경력: 폴란드 외교부, 연구소, 로펌, 국제기구 근무 후 '16년 WIPO 입사 • 자격: 변호사 (Poznań 변호사 협회) • 파견기간: '24.10.14(월)~'25.7.13(일) (9개월)	